[슬픔의 철학-롤랑 바르트 '애도 일기' 김진영 선생님 6강 강의록]

세잔의 어머니

잃어버린 것과 찾은 것

어머니의 상실 후 바르트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고 외친다. 그러나 어쩌면, 이전부터 바르트는 '아무 것'도 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다. 슈만의 어린아이처럼 그는 고집스럽게 자신과 어머니는 연결되어 있었으며 그 연결이 죽음이라는 불청객에 의해 끊어졌다고 주장한다. 허나 죽음이라는 불청객은 손님이다. 손님에게는 아무런 죄도 없다. 죽음으로 인해 우리가 감추고 있던 균열이 드러나게 된다. 지독한 에고이스트였던 바르트에게는 그 자신이 믿고 있던 견고한 바닥이 순식간에 투명하게 녹아내리는 것이었다. 위니코트는 정신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던 것이 이미 일어난 것이며, 일어나도 당신은 여전히 '머물러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어머니는 바르트의 두려움은 치료했지만 동시에 그에게 장막 너머의 세상을 보여주었다. 훈육은 혼내는 것이면서 또한 감싸는 것이기도 하다. 어느 누구도 그를 훈육하지 못한다. 오직 한 사람만 빼고는.

프루스트는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라는 소설을 썼다. 이 '잃어버렸다'라는 것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것이 '상실'되고, 이를 찾기 위해 이곳저곳을 돌아다녀야 한다는 뜻처럼 보인다. 허나 사실 '잃어버린다'라는 것은 그 자신의 행동 반경 내에서, 지극히 그의 안에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다. 구조 바깥으로 나가서 잃어버린 것을 찾아낼 순 없다. 허나 우리는 종종 그 잃어버린 것이 '아주 멀리', 우리의 손이 닿지 않는 곳까지 떠내려갔다고 생각한다. 바르트는 그 잃어버린 시간을 아주 간단한 스위치를 통해, 마치 하루종일 찾은 문서를 무심코 곁에 놓아두었던 파일 속에서 찾은 것처럼 찾아낸다. 그렇기에 '잃어버린 것'은 '찾은 것'이고, '찾은 것'은 '잃어버린 것'이다. 바르트는 초자아로서의 어머니의 부재 앞에서 그 자신의 무력함을 깨닫는다. 그는 '어머니'를 잃어버렸으나, 동시에 '어머니'가 자신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찾았다. 그는 어머니의 상실 후에야 어머니라는 존재를 깨닫게 되었던 것이다.

신 없는 성소

그러나 어머니의 죽음이 그 자신의 '노이로제'를 치료하기 위했던 것이라고 애써 자기 위안을 삼아도 바르트는 끊임없이 강 하구에 부딪치게 된다. 그는 생과 죽음 사이에서 헤매인다. 까라마조프 가의 형제들에서 둘째 이반은 공공연한 무신론자이다. 허나 그는 그 누구보다도 신을 믿는다. 그는 '악마'를 만나게 된다. 어떠한 이유도 없이 어린 아이를 괴롭히는 광기 앞에서 그는 신이 있냐고 되묻지만, 이는 신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도전이다. 믿음이 간절하고 절실할수록 신에 대해 더 도전하고 묻게 된다. 허나 그 끝에서 마주치게 되는 건, 바로 어쩌면 이건 인간이 인간으로서 존재하기 위해 만들어 낸 '초자아'일지도 모른다는 무서운 결말이다. 바르트 또한 그 자신을 지탱하기 위한 위안으로서 어머니의 '위로'를 생각했고 그 자신이 새로운 생을 향해 가는 핑계로 댔지만. 그 한계를 깨달았을 것이다.

그는 그때까지 철저한 에고이스트였으며 동시에 실패한 에고이스트였다. 그는 그 자신의 에고이즘을 방어하기 위해 어머니라는 핑계를 만들어냈지만, 어머니의 헌신은 그의 사유에 파고들어 외면할 수 없게 했다. 그래서 그는 끊임없이 떠내려가고, 나뭇가지에 걸렸다가 또다시. 떠내려가는 것이다. 이 성소에 신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성소를 만들 수 있다.

정말로 신이 있다면 그건 무자비한 신에 더 가깝지 않을까. 자비로운 신이란 인간이 만들어낸 허상에 불과하다. 신은 기도를 들어주는 편보다 기도를 불러일으키게 하는 불행한 사태들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더 많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더더욱 간절하다.

신들의 황혼

에고이스트였던 바르트는 '천상천하 유아독존'을 외쳤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실제로 그가 깨달은 건 그 혼자만이 꼿꼿이 서 있는 기둥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그를 받치고 있는 건 땅이었고 그를 붙잡은 건 힘없어 보이는 흙이었다. 바르트는 어머니의 상실 후 깨닫는다. 그가 여태껏 달려왔던 건 어머니에게 인정받기 위해서였고, 그게 그의 힘이었다는 걸. '애도 일기'에서 사유의 힘은 바로 바르트가 끊임없이 그 자신이라는 에고를 되돌아본다는 점이다. 어린 아이가 글자를 읽고 어머니에게 보여주기 위해 벌레를 잡아 보이는 것, 어린아이가 순수하다며 우리는 즐거워하지만 사실이 순수하다고 느끼는 건 우리가 어리석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우리 또한 타인에게 보여주기 위해, '이것 보세요. 이게 나예요!'라고 말하기 위해 애쓴다. 하지만 그게 부끄럽다고 생각하며 애써

감추려 한다. 오로지 그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만 주장하는 것이다.

어머니의 상실 후 바르트는 혼자서 독립하겠다고 말하지 않는다. 그 상실로 인해 그 자신의 무력함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이전에 그를 가리고 있던 '에고이즘'의 가면을 벗는다. 그리고 철저하게 '헌정의 글쓰기'를 하기로 마음먹는다. 바로 '죽은 어머니'를 향해서.

영웅은 무조건 강한 이가 아니다. 모든 영웅은 결국 끝에서 '돌아오지 않는다'. 영웅들이 돌아오는 건 사실 헐리우드 영화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영웅들은 마지막 임무에서 그 자신의 '무력함'을 깨닫는다. 하지만 그들은 '물러서지 않는다'. 물러서는 순간 그들은 변명을 만들어내고 비겁해진다는 걸 안다. 그들이 그 임무를 선택하는 건 그들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다. 지극히 '타인'을 위해서다. 생존을 중시로 하는 이 사회의 코드에서 그 자신의 생존보다 타인을 위한다는 건 사실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일이다. 그렇기에 그들은 초인으로 불리어지고 전설이 된다.